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2. 13.(목) 06:00 < 2.13.(목) 석간 > 배포 2025. 2. 12.(수)

월드클래스기업, 불확실한 수출환경 최고기술로 극복 다짐

- 제11회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정기총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2월 13일(목)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월드클래스기업협회(협회장 이준혁, 동진쎄미켐 대표) 정기총회에 참석해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한 산업부의 대응계획과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방향을 설명했다.

월드클래스 프로젝트는 최초의 중견기업 특화 지원시책으로, 기술혁신 역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강소·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산업부는 2011년부터 시작된 월드클래스 300(국비 8,709억원)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R&D), 수출, 금융, 해외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을 했으며, 2021년부터는 후속사업인 월드클래스플러스(국비 4,635억원)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월드클래스기업으로 선정되어 활약 중인 기업은 320개사에 이른다.

이준혁 월드클래스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회원사들이 글로벌시장을 선도해 가는 혁신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초청강연에 나선 권태신 김앤장 고문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재 확보와 교육 및 협업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 성공을 도모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 6,838억 달러 달성에 월드클래스기업의 역할이 중요했다” 라면서, “그간 위기 때마다 발휘된 저력과 최고수준의 기술을 바탕으로 올해 펼쳐질 불안정한 수출환경 극복에 동참해달라” 고 당부했다. 또 “정부는 수출기업의 경제운동장을 넓히고 수출 인프라를 강화할 예정이며, 월드클래스 프로젝트 사업은 신규과제 선정 없이 계속과제만 지원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작년 대비 78% 증액된 284억 원을 확보해 10개의 신규 R&D 과제를 진행하고, 수출·금융·컨설팅·인력·법률 부문의 비R&D지원도 활성화하겠다” 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중견기업정책관 중견기업지원과	책임자	과 장	이한철 (044-203-4370)
		담당자	사무관	홍순택 (044-203-43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5년 월드클래스기업협회 정기총회**

□ 행사 개요

○ **(목적)** ❶회원사 간 교류 활성화
❷'24년 사업 결과 및 '25년 사업계획·예산안 보고

○ **(일시)** 2.13.(목), 10:30~13:00

○ **(장소)** 포시즌스 호텔 서울(누리볼룸)

○ **(참석)**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협회장, KIAT원장, 초청 강연자, 회원사, 유관기관 등 약 120명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비 고
1부	10:30 ~ 10:40	10′	국민의례, 영상 시청, 내빈 소개	
	10:40 ~ 10:45	05′	환영사	이준혁 협회장
	10:45 ~ 10:50	05′	축사	산업기반실장
	10:50 ~ 10:55	05′	축사	KIAT 원장
	10:55 ~ 11:30	35′	초청 인사 강연	권태신(김앤장 고문)
	11:30 ~ 11:35	5′	단체 기념촬영	
	11:35 ~ 11:40	5′	Break Time	
2부	11:40 ~ 12:00	20′	총회 안건 심의	
	12:00 ~ 13:00	60′	오찬 / 회원사 교류	